

일평생 염불수행 일상이 삼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설산 스님 (염불만일회 법주)



설산 스님이 늘 돌리고 있는 천일 염주.



차를 마실때도 설산 스님은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정경을 하며 염불을 놓지 않는다.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오른쪽)의 차담 모습.

1만일 염불 서원...27년만에 회향 하루 두번 1천번씩 "관세음보살" 뜸뜸이 만해 스님 자료도 정리

매칠전 내린 봄비로 개나리와 철쭉이 삼각산에 가득했다. 삼각산의 봄 내음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맑게 하는 것 같았다. 초행이라 도량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울 평창동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 순간 정토사라는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가는 조그마한 마을길을 따라 삼각산 종턱으로 올라서자 불사가 한창인 정토사가 반겼다.

前 태안사 조실 청화 스님과 함께 염불 수행의 선 지식으로 손꼽히는 설산(雪山) 스님. 선지식이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서일까, 불사가 한창인 도심사찰 정토사를 보는 순간 다소 낯선 느낌이 들었다.

공사 자재를 피해 겨우 법당으로 올라가 삼배를 하고 스님이 기거하시는 아래층 요사채로 들어가자 설산 스님은 문 앞 소파에 앉아 반갑게 맞아 주었다. 8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얼굴은 마치 어린 아이 같이 해맑았다.

삼배를 마치고 큰스님에게 법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왔다고 여쭙자 "법문이 뭐 법건가. 얼굴 한번 보고 가면 되지" 하며 연신 웃으셨다.

스님의 뉘그러자 어떻게 평생을 염불만 하고 살아 오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마음 한편에서 불쑥 솟아났다. 먼저 스님께 어떻게 염불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물었다.

"15세 나이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는데 당시 건봉사에는 강원과 염불방, 참선방이 다 있었어요. 강원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



설산 스님은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4시, 오후 6시 두차례 지극정성으로 염불 수행을 한다.

는데 '쿵'하는 소리가 나서 염불방에 가보니 10여 명의 스님들이 염불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그 염불 소리를 좇아 가는거야. 그래서 염불로 불법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염불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벌써 한평생이 되었네요."

설산 스님은 건봉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한암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참선 수행을 시작해 10하안거를 성만했다. 한국전쟁으로 건봉사가 폐사되자 이곳 삼각산 자락에 정토사를 세우고 염불 수행에 매진해왔다.

1974년, 1만일 염불 수행의 서원을 세운 스님은 매일 일념으로 염불을 해 오셨다. 27년동안 한번도 거름없이 염불을 해 만일을 회향하고 나서, 2001년 10월 건봉사에서 다시 만일 염불 정진에 돌입했다.

설산 스님의 하루는 여느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새벽 4시에 시작된다. 그러나 사중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워낙 고령이어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이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요사에 머무르시라는 간곡한 청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스님은 예불 시간에 요사에서 염불 수행을 하신다.

설산 스님이 방으로 들어가자고 해 초소로 자리를 옮겼다.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자는 당황스러웠다. 방은 한명이 누우면 딱 할 정도로 좁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벽에 걸린 관세음보살도와 서가, 조그마한 간이 책상, 바구니 안에 놓인 천일 염주와 거북이 목각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새벽 4시~5시, 저녁 6시~7시 매일 두차례 지극정성으로 염불 수행을 한다. 수행 방법도 특이하다. 정좌를 한 다음 간이 책상위 거북이 목각과 천일 염주를 가지런히 놓고 염주를 한알 한알 돌리며

입과 마음으로 정명 염불을 한다. 천번을 다 돌리면 염주와 거북이를 정리한 다음 다시 반복한다.

하루에 두 번 염불을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중생심이다. 스님은 밥 먹을때나 화장실을 갈 때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정경을 놓는 법이 없다. 말하자면 하루 종일 염불을 하는 것이다.

저녁 6시 어머니부처님에게 염불을 한다는 것을 고한 이후 관세음보살 정경을 하며 염주를 돌리는 스님의 모습에서 웬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다.

염불 수행을 하는 틈틈이 설산 스님은 만해 스님의 자료를 정리한다. 고성 건봉사에서 만해 스님으로부터 직접 경전을 배웠고 누구보다도 만해 스님을 가까이에서 보셨다. 그래서 이생을 마감하기 전에 만해 스님의 자료를 모아 책으로 만들어 스님으로서의 만해 스님을 불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하셨다. 스님은 만해 스님에게 보내는 존경의 염이 넘쳐흘러 그동안 '산가' 등 여러편의 시를 지었다.

설산 스님은 왼쪽 발가락이 하나 밖에 없다. 일제

감잡기에 학도병으로 끌려 갈수 없다는 항거의 표시로 스스로 네 발가락을 잘랐기 때문이다. 60여년을 절뚝이로 살아왔지만 스님은 만해 스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음을 지어보이신다.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스님의 성취 않은 다리에서 민족의 비애를 느낄 수 있었다.

책꽂이 앞에서 만해 스님 자료를 정리하다가 스님은 <지옥을 불태워 버려라>는 제목을 책을 가져다 게 내밀었다. 청담스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편찬한 책이다.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불교 문화 운동에 동참하는 등 글곡의 한국 불교와 함께 해 왔다. 특히 청담 스님이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재임할 당시 스님의 수법제자가 되어 종단회합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지금은 고령에도 불편한 다리 때문에 지팡이와 벽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동이 불편한 스님. 그러나 아직까지 염불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웃음을 지어 보이시는 모습에서 정토에 활짝 핀 연꽃이 연상되었다.

글=김두서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禪教에 두루 밝은 선지식

설산 스님은 1919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설산 스님은 15세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건봉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건봉사 공비생(公費生)'으로 선발되어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해화전문학교 불교학과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았다. 청담 스님의 수법제자로 종회의원, 건봉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신탄현원 원장을 맡아 후학지도와

수행교화에 헌신해 왔다. 현재 삼각산 정토사에 주석하고 계시며 저서로는 회고록 <무경없는 조선 역사책>과 사찰 안에서 <명찰 고찰 따라> 등 다수가 있다. 설산 스님은 경음론 삼장은 물론 선지에도 밝고 실천하는 수행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은 "큰스님을 보면 부처님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평생을 한결같이 염불 수행을 해 오신 스님의 실천행이 우리같은 후학들에게는 사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4회 가침박달꽃 축제

화장사 경내에 자생하는 가침박달꽃은 부처님께서 오신 오월에 만개하여 순백의 단아함이 마치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 합니다. 가침박달나무 숲은 충북고시 제32호로 지정된 천연보호림이며 또한 나무들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꽃을 보고 싶다면 개침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만 같은 향내에 '개침꽃'이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만 보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이 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가시길 바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초대하오니 여러 분들이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대기간 : 2006년 4월 29일 -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 주요행사
 - ▷ 4월 29일(토) 오후 3시 - 4시 30분 HCN 공개방송 특집 열전최고스타 '제4회 가침박달가요제' 초대가수 - 송대관, LPG 등
 - ▷ 5월 1일(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꽃과 차와 전국다인의 아름다운 인연
 - ▷ 5월 2일(화) 오전 11시 - 오후 2시 어르신, 환경미화원과 함께하는 위안잔치
 - ▷ 5월 5일(금) 오전 10시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범오식
 -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29-4 전화 (043)255-5758 www.hwajangsa.or.kr

茶·禪·食 박물관 건립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세요

우리는 21세기의 현 시대를 웰빙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걸맞는 다선식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몇 해 전부터 고민을 해오다 화장사의 경제 힘만으로는 미약하여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립으로 추진한 지난해 12월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제민사를 열어 지역여론을 모은 결과 평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선식박물관건립의 요지로서 교통과 환경여건이 잘 갖추어져 이 곳의 부지가 최적이라는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사 주변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수목인 가침박달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또한 사찰 주위에는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유원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다선식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지역사회는 물론 다양한 계층을 교육할 수 있는 생활박물관의 장을 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급격하게 다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조급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다선식의 생활교육입니다. 함께하는 박물관이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바랍니다.

다선식 박물관 추진내용

- 시설
 - 유물전시관 : 다구 및 치류 전시실, 선사유물 전시실, 옛 조리도구 전시실
 - 체험관 : 다도 실습실, 시민선방, 사찰음식 실습실
 - 교육관 : 세미나실, 대회의실

• 유물 기증 및 후원안내
다선식 박물관을 후원하는 것은 인류의 풍요로운 정신세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유물기증 및 기금후원을 통해 박물관 건립에 동참할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유물기증 : 다선식 박물관에 전시할 각종 대부 및 도자기, 선사시대 유물(세화포함), 취사도구 등을 유상, 무상, 임대등의 형태로 기증을 받으시거나, 무상원예의 경우 기증자의 이름을 동판으로 제작해 명예의 전당에 전시하게 됩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기증사와 유물물관 관련 추진경과에 따라 신청이 우선입니다.
• 기금후원 : 다선식 박물관은 대한불교조계종 화장사기 부처님 재영하고 각종 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게 됩니다. 건립에 따른 주요 예산금·도박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뜨겁고 성실한 마음이 모여 전대 크건일이 완공될 수 있습니다.



화장사 사찰 전경

※ 유물기증 및 기금후원과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 장 사 · 다선식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무진 김진영 합장

1초 염불하면 1초가 극락

설산 스님의 가르침 저는 평생 염불 수행을 한 사람이라 법문을 하라니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염불 수행을 하라는 법문은 많이 했으니 오늘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因緣)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인연의 참된 뜻을 알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연은 인(因)과 연(緣)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은 한마디로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과거의 업보에 의해 오늘의 내가 모양 지어졌기 때문이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중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자 하겠습니니다.

연은 후천적 노력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전화도 하고 맛난 음식을 같이 먹는 등 서로가 노력했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의 영역이라 하겠습니까. 후천적 노력이었다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에 수백겁의 인연이 있고 업식이 쌓여서 금생에 웃음을 스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불교는 인연법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이 서로 인연이 되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이같은 존재 방식을 연기(緣起) 또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기의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윤회 전생의 연자방아가 도는 것처럼, 생사고해에서 헤매며 하루밤에도 수 천 번 죽고 태어나는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같은 인과응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연기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선방에 앉아 연기법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용맹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 염불, 절, 사경 등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염불을 평생 수행으로 살아왔습니다. 염불이야기를 안하라고 했는 데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사리불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들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명호를 외우면 신란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聖衆)들이 나타나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염불의 공덕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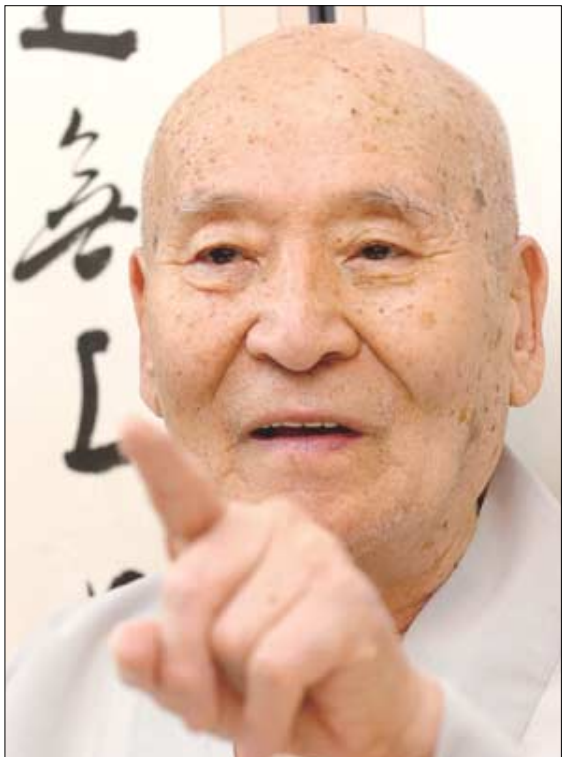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염불을 해 보십시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겨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단 1초를 염불하더라도 지극정성으로 다른 생각 말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명호를 불러 보세요. 그 1초가 바로 극락입니다.

또한 1초가 다시 1초로 거듭나면 그것이 바로 염불 삼매의 경지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0만쪽, 20만쪽을 하는 것보다 지성으로 1초를 호명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클 수 있습니다. 염불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며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불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불 수행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쉽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염불입니다. 집에서 밥 할 때나 지하철을 탈 때도 한마음으로 염불을 해 보십시오. 해외 달이 뜨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듯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면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금강같이 단단해 집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칭명 염불을 하는 것도 좋은 수행법이지만 마음속으로 칭명을 하는 것도 염불 수행의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매

“매일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부처님 명호 불러 보세요”



설산 스님은 불자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수행을 하라고 당부한다.

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 놓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을 1만번씩만 해 보십시오.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 염불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야 할 것이고 일찍 자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루 일과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일차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염불 공덕도 쌓고 스스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 매일매일 살아있는 참된 불자가 될 것입니다.

불자들은 아미타불을 호명하면 극락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건봉사 염불방에서 처음으로 염불을 배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인자라 그것이 극락인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관세음보살 염불을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 경근을 하다보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바로 연기의 도리를 깨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침의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임을 관세음보살이 알려줍니다.

다소 풍만치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염불 수행한 저는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불러보면 관세음보살이 분명 극락세계를 일러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러 보세요.

참선을 중요시하는 한국불교의 특성상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이 최상의 수행법이라고 많은 불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불을 기복 신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불 정진은 불자들의 지극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불심을 더 돈독하게 하는 정토 신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참선과 같은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한번 부처님의 명호를 몸과 마음으로 호명해 보세요. 청라=김두식 기자 · 사진=고명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1>



그 식당 아주머니의 고민

우리 동네 부대찌개 식당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아주머니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식당을 확장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돈이 좀 벌린다 싶으면 사업장부터 넓히려 든다”면서 작은 식당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분을 제가 신문에 큼직하게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절에 가면 스님들로부터 ‘집착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는 법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정신없이 일에 치이고 돈 벌기에 급급해서 살다가 마음 한 자락 내려놓고 싶어 찾아간 법회에서 그런 법문을 들으면 세속의 내 삶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절을 나서는 발걸음이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욕심인 말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싶은 것도, 건강하고 싶은 것도, 행복해지고 싶은 것도 욕심일까? 남편과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욕심일까?

그런 게 다 욕심이라면 절에 가서 법문 들으며 내 인생을 의미있게 살려고 하는 것도 욕심

고 합니다.

첫째는 눈이 없는 사람이니 세상을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도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는 생각을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이니 부지런히 돈을 모으기만 할 뿐 일은 재산으로 제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남에게 배필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두 눈이 다 있는 사람이니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벌어들 돈도 잘 관리하면서 두루두루 베푸는 사람입니다.(월처사판경)

이것만 보아도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 즉 의욕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따끔하게 지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버려야 할 욕심’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그것은 바로 이치에 어리석은 이가 품는 욕심입니다. 그 이치는 바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인과법인 것이지요. 인과법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아도 머리로는 알아서 남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들을 탐내는 마음이 바로 버려야 할 욕심인 것입니다. 한 아름의 수확을 얻고 싶으면 그 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고작 한 줌의 노력만 기울이고는 한 아름의 수확을 바라는 마음, 자식에 선

남편과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욕심일까?

삶 개선 ·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욕심 아니다

일까요? 그럼 스님들이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법문하시는 것도 욕심일까요? 욕심을 버려겠다는 마음도 욕심일까요?

식당 아주머니의 그 고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제 슬슬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그런데 절에 가면 욕심을 버려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충분히 돈을 더 벌고 사업을 더 일으킬 능력이 있는데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일까?”

<중아함경(제법본경)>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윤회(輪廻)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회(이란 것은 어려서부터 하고 자 하는 마음(의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령체에게는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이 본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이룬 것이고, 그 생명을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삶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마음,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절대로 버려야 할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업을 짓도록 가르치지 않고 오직 자식이 복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버려야 할 욕심입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사업장을 넓히고 싶은 것은 ‘버려야 할 욕심’이 아닙니다. 그 분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식당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사업장을 넓힐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런 점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 벌어들인 돈은 주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세상에는 독불장군이란 없다는 점,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내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평생을 쌓아올린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능력 있는 이 내 몸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재산을 불려가고 사업을 확장하는 재미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잊지않는다면 부처님도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 믿습니다.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맞이하게 된 식당 아주머니의 사업 확장의 꿈을 위하여.

■ 이미형(통곡역경원 역경위원)

삼사순례 및 방생. 기도영험도량 감로법비의 성지 동해사

※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 낙산사 10분 거리
휴휴암 15분 거리
불탑사 10분 거리

귀머고, 눈멀고, 다리불구이거나, 곱추거나, 정신이상이거나, 여러가지 신병에 걸렸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명호를 듣게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소원을 이루리라는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소원이루시길 바랍니다.

불사안내

- ◆와 불 : 1구좌 100만원
- ◆동속부처님원불 : 1000만원
- ◆추분명화 : 300만원 (동속부처님은 옥불로 모심)
- ◆협사불 : 각 700만원
- ◆전 불 : 한부처님 30만원
- ◆계좌번호 : 능협 331036-51-062531 동해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범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시월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안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조종 및 초롱 같이대

연 등 (정품)

법당용(공단형),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불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군사철,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